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알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망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민국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12-8200 © 2005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장환 편집인: 노정현 편집: 장재홍

이번 주 금요일(18일) 저녁 7시 제1차 청지기 훈련

예수님의 기도! (눅 6:12)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아이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고, 나라가 통일되게 해 주시고...' 이 처럼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도 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큰 오해이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 깨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전혀 필요 없었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모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더 나아가 '충원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현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니다. 화를보다 더 귀한 말씀을 들으러 온자 오지 마시고, 주위 분들을 권면하여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충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청지기 훈련 좌석 배치표 (7면 참조)



▶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교요집전) ▶

그리스도의 인성 (2)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엡 1:9-10).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연합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이라는 사실과 이를 위해서 최고의 값으로 낳아지신 데가지를 낳아지신 사랑의 고귀하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는 것과 관계된 중요한 점은 '그의 인성, 특별한 전지전능하심이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성품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의 인성을 잃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으로 인한 신성에 대항하여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잃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으로 인한 신성에 대항하여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잃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으로 인한 신성에 대항하여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잃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으로 인한 신성에 대항하여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가 세상에 계신 동안 그의 신성한 성품 곧 전지전능하심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또 어떻게 자기를 메시아이로, 메시아로서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를 잃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으로 인한 신성에 대항하여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잃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으로 인한 신성에 대항하여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잃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으로 인한 신성에 대항하여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잃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으로 인한 신성에 대항하여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속되는 말씀의 진치, 겨울 계절학교!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도 아닙니다. 또한, 추상적인 관념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사상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절학교를 1월에 이어 계속할 예정입니다. 먼저 21(월), 22(화)일 양일에 걸쳐 영아부부터 소년부까지 제1, 2 교육관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쪼개 참가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기에 은혜가 넘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학부 수련회가 충원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다른 세속적인 프로그램들이 아닌, 오직 말씀(별명보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1, 2부가 28(일)부터 3월 1(일)까지 각각 충원회 기도원과 제2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에바다부가 3월 1일에 에바다부실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될 말씀의 잔치인 겨울 계절학교를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어지는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05년 전반기 장학상 명단 안내 (6면 참조)

2005년도
제3차
CMTC 훈련
둘째 날

오늘 (13일)

제1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18:10-19:00	갈릴리움
제2강	타고온 이해 및 종교권역별 사례발표(선교각의 정교·카톨릭·기독교·힌두교·불교)	19:10-20:10	나사렛을 갈릴리움 분당12호 배다나움

* 제2강 강의는 '타고온 이해'가 30분, '종교권역별 사례발표'가 30분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을까? 16-17?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것을 항상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운행을 한 순간이라도 멈추시다면 그 때는 곧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레위기 3:10-13).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돌보고 계시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그는 육체적으로 물질의 요소(원자)와 분자를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계실 때에 그 자신을 돌보고 계신 것이다. 계속해서 참고 자랑하고 존귀하고 성령하며 그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이다(레위기 3:3).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는 하늘에 합당한 영광된 몸을 입으셨다(고린도 15:42-51).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본으로 영원토록 그 자신을 돌보고 계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러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예수님에 관한 두 하의 역설은 '어떻게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하셨는 분이'고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냐? 하는 것이다. 시험을 받음과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말이다(마태 4:15).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시험을 받는 것은 그의 인성과 관련된 일이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신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분을 모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 같이 살아가는 한다면 11:16,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28:71, 28:72,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29:86, 29:87, 29:88, 29:89,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 30:52, 30:53, 30:54, 30:55, 30:56, 30:57,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30:68, 30:69, 30:70, 30:71, 30:72, 30:73, 30:74, 30:75, 30:76, 30:77, 30:78, 30:79, 30:80, 30:81, 30:82, 30:83, 30:84, 30:85, 30:86, 30:87, 30:88, 30:89, 30:90, 30:91, 30:92, 30:93, 30:94, 30:95, 30:96, 30:97, 30:98, 30:99,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1:10, 31:11, 31:12, 31:13, 31:14, 31:15, 31:16, 31:17, 31:18, 31:19, 31:20, 31:21, 31:22, 31:23, 31:24, 31:25, 31:26, 31:27, 31:28, 31:29, 31:30, 31:31, 31:32, 31:33, 31:34, 31:35, 31:36, 31:37, 31:38, 31:39, 31:40, 31:41, 31:42, 31:43, 31:44, 31:45, 31:46, 31:47, 31:48, 31:49,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31:60, 31:61, 31:62, 31:63, 31:64, 31:65, 31:66, 31:67, 31:68, 31:69, 31:70,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31:90,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7, 31:98, 31:99,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32:16, 32:17, 32:18, 32:19, 32:20, 32:21, 32:22, 32:23, 32:24, 32:25, 32:26, 32:27, 32:28, 32:29, 32:30, 32:31, 32:32, 32:33, 32:34, 32:35, 32:36, 32:37, 32:38, 32:39, 32:40, 32:41, 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32:62, 32:63, 32:64, 32:65, 32:66, 32:67, 32:68, 32:69, 32:70, 32:71, 32:72, 32:73, 32:74, 32:75, 32:76, 32:77, 32:78, 32:79, 32:80, 32:81, 32:82, 32:83, 32:84, 32:85, 32:86, 32:87, 32:88, 32:89, 32:90, 32:91, 32:92, 32:93, 32:94, 32:95, 32:96, 32:97, 32:98, 32:99,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33:18, 33:19, 33:20, 33:21, 33:22, 33:23, 33:24, 33:25, 33:26, 33:27, 33:28, 33:29, 33:30, 33:31, 33:32, 33:33, 33:34, 33:35, 33:36, 33:37, 33:38, 33:39, 33:40, 33:41, 33:42, 33:43, 33:44, 33:45, 33:46, 33:47, 33:48, 33:49, 33:50, 33:51, 33:52, 33:53, 33:54, 33:55, 33:56, 33:57, 33:58, 33:59, 33:60, 33:61, 33:62, 33:63,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1, 33:72, 33:73, 33:74, 33:75, 33:76, 33:77, 33:78, 33:79, 33:80, 33:81, 33:82, 33:83, 33:84, 33:85, 33:86, 33:87, 33:88, 33:89, 33:90, 33:91, 33:92, 33:93,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34:21, 34:22, 34:23, 34:24, 34:25, 34:26, 34:27, 34:28, 34:29,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34:42, 34:43, 34:44, 34:45, 34:46, 34:47, 34:48, 34:49, 34:50, 34:51, 34:52, 34:53, 34:54, 34:55, 34:56, 34:57, 34:58, 34:59,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34:73, 34:74, 34:75, 34:76, 34:77, 34:78, 34:79,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34:90, 34:91, 34:92, 34:93, 34:94, 34:95, 34:96, 34:97, 34:98, 34:99,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5:10, 35:11, 35:12, 35:13, 35:14, 35:15, 35:16, 35:17, 35:18, 35:19, 35:20, 35:21, 35:22, 35:23, 35:24, 35:25, 35:26, 35:27, 35:28, 35:29, 35:30, 35:31, 35:32, 35:33, 35:34, 35:35, 35:36, 35:37, 35:38, 35:39, 35:40, 35:41, 35:42, 35:43, 35:44, 35:45, 35:46, 35:47, 35:48, 35:49, 35:50, 35:51, 35:52, 35:53, 35:54, 35:55,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35:63, 35:64, 35:65, 35:66, 35:6

GOD'S CALL TO BELIEVERS

Now when Abram was ninety-nine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Abram and said to him,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Genesis 17:1)

The Creator God is an Almighty God with whom there is no comparison. This Wonderful God appeared to Abram when he was ninety-nine years old, and calle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Gn. 17:1). What kind of sense do you make of this statement? No one is blameless, most especially in front of God. This can appear a little puzzling. When you look back a few chapters, you see that God called Abram several other times (see Gn. 12:7; 13:17-18; 15:5-6). In these callings, He proclaimed His covenant to Abram. Here, in today's verse, His call is like the final step. He tells Abram who He is (God Almighty), gives Him direction (walk before Me), and then a direct command (be blameless). This special call is God's call to all believers. If you are a believer, a Christian, then God is calling you exactly as He called Abram.

Thirteen years before God gave Abram this call, He promised to reward him greatly with a son (Gn. 15:1-4). When the call came, Abram only had Ishmael. He was still waiting for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What can you learn concerning Abram's faith? Hebrews 11:6 says,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Abram had a positive attitude. His faith wanted God's reward.

Having faith is a victory all in itself. Abram's faith was not perfect, but in real faith, victory always follows the fall. Abram said to God, "Since You have given no offspring to me, one born in my house is my heir" (Gn. 15:3). Psalm 27:14 reminds us,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yes, wait for the Lord." Are you ready for the wait? Abram left his home country to follow God's leading. Even though he sometimes faltered and failed, he still waited. Psalm 31:15 says, "My times are in Your hand; deliver me from the hand of my enemies and from those who persecute me." Abram was waiting because he believed in God's love. Do you believe in God's love? Do you believe He loves His only begotten Son? Even though the sunshine may be gone in your life, I hope you hold on to your faith. Sometimes theology, culture, and even your religious conscious leads you in other directions, but it is only your faith that holds you down and helps you wait for God's love.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Please hold on to the cross, and you will experience abundant triumph.

God directed Abram to walk before Him. In life, there is much evil. The world is full of the devil and his demons, which is why God tells you to walk before Him. Satan uses all kinds of people, even your parents, spouse, kids, and desires, to get at you. Remember that

God wants you to walk before Him. In other words, recognize evil and unfaithfulness. Recognize the need to walk before God. Walking before God means concentrating on Him. Psalm 62:2 says, "He only is my rock and my salvation, my stronghold; I shall not be greatly shaken." Keep remembering God. Remember Him in your sleep, rest, and walk. Whatever situation you find yourself in, even in the midst of a den of lions, walk before Him. The devil is like a lion, prowling around waiting to find the weak, but God is Almighty, He is with you always. You can be courageous!

God told Abram, "I am God Almighty". This gives you tremendous encouragement. Romans 8:32 say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over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You are not perfect, just like Abram was not perfect. You will fail sometimes, but there is an answer. 1 John 1:9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You can experience victory! You can triumph over evil. If you keep thinking your perfect, and keep telling yourself that you will never fail, then you will never experience victory. Romans 4:14 says, "For if those who are of the Law are heirs, faith is made void and the promise is nullified." You cannot live by the Law, no one can. The purpose of the Law was to show just this fact. Romans 6:14 says, "For sin shall not be master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If you keep confessing, He will keep cleansing, so that victory can be yours.

Now, the mystery of blamelessness is uncovered. You can be blameless because of grace. Do you have faith in God's Word? Philipians 4:6 says,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You have to practice your faith.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1 Jn. 5:4). Here is the answer to life. Revelation 21:7 confirms,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these things (a new intimacy with God and the elimination of those sorrows that sin bring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As you remember Jesus on His walk to the cross, during this second Sunday of Lent, I want you to believe God's call,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I want you to know that this call to you is not impossible to obey. You have a great choice. God's grace makes it possible. His call and your obedience to it will bring you victory today, tomorrow, and forever. Amen. ■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람의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1)



김성관 목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비할 대가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1b). 이 때 아브람은 구십구 세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흠이 없이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간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창 12:7, 13:17-18, 15:5-6). 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데 이번 말씀이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전능하신 하나님임)를 말씀하시고, 아브람에게 지시를 하시고(내 앞에 행하라), 직접적인 명령을 하십니다(완전하라). 아브람에게 내려진 이 특별한 말씀은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믿는 참 신자라면,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13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곧 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창 15:1-4). 그 때 아브람의 후손은 이스마엘뿐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했습니다.

심자가를 붙들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승리입니다. 사실 아브람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후에도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말했습니까.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창 15:3).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니 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고향 본토를 떠났습니다. 아브람은 종종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시편 39편 15절은 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자니 내 원수와 꺾히려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탕하나는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극한 곤란으로 가득 차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도, 문화도, 종교적인 의식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기다리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굳게 붙들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배우자, 자녀들뿐만 아

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들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악과 신실치 못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할 필요가 있음을 꼭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62편 2절은 말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잠을 잘 때에도, 설 때에도, 길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심지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매일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람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라며 항상 자신만만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시하여 믿음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아니하되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님도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시길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승리는 항상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며

이제 여러분은 흠 없이 “완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때문에 흠이 없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은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써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생명에 이르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확실하게 말해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하나님과 그의 새로 온 친밀한 사랑과 죄가 가져온 슬픔이 제거되는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의 지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1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선택의 기회가 여러분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 있으면, 승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

장로 칼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동하는 젊은이들



조 호환 (제2교육위원장)

2005년 신년예배의 말씀이었던 “주님이 쓰시는 그릇”(딤후 2:20-21)은 전 성도들에게는 물론,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주 귀한 도전의 말씀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갈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2005년에도 주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넘치리라 믿는다.

은총의 젊은이들

고등부·대학부·청년1부·청년2부로 구성된 제2교육위원회는 교회 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이다. 고등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학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청년1부는 만 35세 미만의 젊은이, 청년2부는 만 35~39세까지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난 해 중반부터 청년2부를 제3교육위원회에서 제2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바꾸었다. 이후 제2교육위원회는 명실공히 젊은이들만의 위원회가 된 셈이다. 또한 일찍이 대학부 집회를 주일에서 토요일로 옮겨 대학생들이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각 교회학교 및 찬양대에 젊은 일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청년1부의 집회시간을 토요일로 옮겨 더욱더 많은 젊은이들이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이 일을 계기로 충현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교회를 지고 갈 복음의 일꾼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그 후에 지위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호 3:5).

십자가 은혜로 생동하는 젊은이들

제1교육관에 이어 제2교육관이 완공되어 이곳을 젊은이들의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고려한 건축과 내부설계는 더욱더 많은 젊은이에게 친근감을 준다. 주일에는 고등부와 청년2부가, 토요일에는 대학부와 청년1부가 사용하게 되어 교회 내에서 10대~30대 젊은이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교회는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정병으로(딤후 2:3) 키우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1997년 젊은이들이 드리는 5부 예배를 자신들이 주축이 되는 예배로 알고 참석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매년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단순히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소속된 부서에 열심히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갈 6:14). 은 교회가 그렇듯이 제2교육위원회 소속 젊은이들은 위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제작된 주일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성경공부 시간에 미리 배운 말씀을 주일 5부 예배 설교 때에 다시 듣게 되면 예배의 집중은 물론 말씀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어 교회가 지향하는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 찬양대에 매달 알려줄 가독 메우고 말씀을 통해 은혜받은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주간충현》에 실리는 간증과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은총을 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딤후 2:11).

말씀으로 생동하는 젊은이들

교회는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후원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월 첫 금요집회에서 위임 목사님은 2005년도의 금요집회는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

며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다. 따라서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금요집회를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소중한 훈련과정으로 생각하여 교회 내의 모든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자신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오니 나의 다난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노라”(시 143:8).

복음으로 생동하는 젊은이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젊은이들이 점점 주역을 맡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동참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에 속한 젊은이들이 팀으로 참가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각 팀에 소속되어 나간 인원까지 합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젊은이들이 앞장섰음을 알게 된다. 교회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가운데 앞으로 교회적인 큰 사명까지 안고 있는 제2교육위원회의 산하 부서들은 그 동안의 열적인 성숙에 이어 금년에는 전교회 차원으로 펼치고 있는 1인 1명 전도에 발맞추어 각 부서별로 배가(倍加)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며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을 건지려는 열정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가 교구에 속해 나갔을 때 권사님, 집사님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노소 간에 피차 존중하며 사랑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엡 2:22). 또한 금년에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고등부·대학부 학생들이 단기선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고등부 150명, 대학부 400명, 청년1부 50명, 청년2부 50명, 모두 6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 사역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감람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19-20). 열방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젊은이들의 간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 세대를 지고 갈 생동하는 젊은이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인젠가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한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 세대가 행하였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마 16:24).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다니엘처럼(단 2: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단 3:18)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중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2).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또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매일 매일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갖가지 유혹이 많은 청년의 때에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동할 젊은이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이는 충현 교회를 소망한다.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을 2:12-17)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을 2:12).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르게 된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날들이 올다.

-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신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각처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될이나 이제 말하였으니”(을 2:16).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매우 아름다운 큰 잔치와 축제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성경은 땅과 하늘이 없었나니 라고 밝히 말씀하시지만, 수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심판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다. 세상의 것에 너무나 민감하고 영적인 영원한 진리에는 너무나 무감각하다. 곧 애도하고 겸손한 날이오 땀복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내린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과 이같은 것이 자고 이대로 있었고 이후 세상에 없으리로 다”(을 2:2). 그 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날은 기쁜 날은 아니다. 그 날은 공포의 날이다. 불이 그들의 입을 사르는 멸망의 날이다. “불이 그들의 입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혀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애연 뿜았었나니 그 후의 땅은 그들의 발을 밟고 그들을 파한 자기 없었나”(을 2:3). 불꽃이 그들을 태우며, 아무도 이 불을 피할 수 없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다. 사랑과 은사와 겸손의 시대이다. 은총의 시대를 진지하게 존중한다 시대이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르다. 권위와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라는 날이다.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황폐한 땅으로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렐 1:17) 여호와께서 이를 좇아 우리를 살리시며 채 십 달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렐 6:12).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라. 모든 영적인 행동, 모든 감정의 표현, 생각, 사고 등 모든 이기적인 것, 예뻐한 그림 그리고 나쁜은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와 책망과 교훈을 주시며 우리 회도 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길을 보여주시며 권고하신다. 하나님은 생령님들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것에 정신을 잃고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면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충고를 받아들이는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는가?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을 2:12). 회개해야 한다. 요엘 선지자는 생세하게 외치고 있다. 그날에 대해서 황야, 메뚜기, 미행, 지진 등으로 묘사한다.

오늘부터 시온절이 시작이 된다. 이 기간에 우리는 자신을 살피라 한다. 엄청난 죄악들, 이기주의, 물질주의, 명예, 매마른 심령, 교만, 질투, 증오로 가득찬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은총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한다.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회개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다. 공로가 아니라 실적이 아니라 자랑과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다.

- 자신에 대해서 돌아오라. 참된 회개는 자신에 대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다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살피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잘살피야 한다. “너희는 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대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을 2:3).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안락은 피파되어 우리는 멸망의 행렬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한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나니 아직도 상가만 데 내 아버지야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나”(눅 15:20).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 다른 자들에게 돌아오라. 이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 이 일은 천히 주께서 부활하신 일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우리 모두 기도하여 복음을 전하자.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믿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지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귀한 축복이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리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령조차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이시다. 이와 같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배움과 주님 주시는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는 매일 변화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령들에게 지금 나아가 은총의 복음을 전하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교지에서 온 편지

C국에 십자가의 복음이

안녕하십니까? 충청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C국의 새 생명 교회를 섬기는 발라지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늘 충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이웃 새 생명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뿐이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그 때 저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 충청교회에 4년 이상 출석하면서 C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섬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술과 담배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땅자같은 저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저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청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제적인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온 이후로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믿음의 친구인 바스카 자매, 차기 자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한 목사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인 새 생명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월 28일이면 새 생명 교회는 1주년을 맞이합니다. 첫 예배 때에 5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은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고 한 걸음 한 걸음 때 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C국은 불로 가리지만 지난 10년간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 생명 교회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C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어려울 때도 말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때마다 항상 외침에 새 힘을 주셨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저희 새 생명 교회성도들이 충청교회에서 온 단기 선교 팀들과 함께 지방 사역을 하고 시내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새 생명 교회는 매주 주일과 수요일에 모여 드리고 예배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심방하며 교제

하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을 통해 신앙이 성장되고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새 생명 교회 모든 성도들은 C국에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청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1월 새 생명 교회 발라지 올림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2월 5일(목)-2월 14일(월)	선교대1	이경재	2월 10일(목)-2월 19일(월)	선교대15	김현호
2월 7일(월)-2월 16일(수)	선교대12	이상범	2월 13일(목)-2월 18일(월)	선교대16	최준호
2월 7일(월)-2월 16일(수)	선교대13	윤정훈	2월 11일(목)-2월 21일(월)	선교대17	윤혜진
2월 10일(목)-2월 19일(월)	선교대14	김국권			

▲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1월 29일(목)-2월 10일(목)	선교대2	최준호	2월 2일(수)-2월 12일(월)	선교대8	박옥원
1월 29일(목)-2월 10일(목)	선교대3	홍순길	2월 2일(수)-2월 12일(월)	선교대9	이신동
1월 29일(목)-2월 10일(목)	선교대4	장영희	2월 3일(목)-2월 11일(월)	선교대10	허영철
1월 31일(월)-2월 8일(월)	선교대5	김종성	2월 4일(목)-2월 11일(월)	선교대11	이정호
1월 31일(월)-2월 9일(수)	선교대6	이승우	2월 4일(목)-2월 12일(월)	2교구 팀	박종규
2월 1일(화)-2월 9일(수)	선교대7	전지식	2월 4일(목)-2월 12일(월)	청년1부	김현호
2월 1일(화)-2월 9일(수)	6교구 추가	김규석	2월 7일(일)-2월 12일(월)	고등부2	이보신
2월 2일(수)-2월 9일(수)	고등부1	오순도	2월 7일(일)-2월 12일(월)	고등부3	주재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기도회: 매주일 오후 4:00 / 길의리움)

금요집회 "천국복음"을 듣고

아들의 나라에 대한 소망

어릴 때, 어찌면 얼마 전까지도, 나는 천국이란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 갈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그냥 세상 사람들마저도 인정해버린 사후 세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때는 가장 큰 신물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찌면, 천국이란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성경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도자 모세, 용맹한 다윗,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바울 등 이름만 들어도 멋진 그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전에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생각해 보면, 막연히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인지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는 이 세상에 오셨고, 2000년 뒤 아주 조그마한 나에게 낮은 모습으로 내 맘에 들어 오셨습니다. 그제야 난 가장 큰 선물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았습다. 비록 이 세상 안에 슬픔이 많고 괴롭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난 지금도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요, 아마 나 혼자만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셔서 그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 나를 끌어 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 예수 오실 때 완전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그 천국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능동적으로 그 천국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 것으로 그 첫 것이 아니라 내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뜻을 품게 하여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박준규(대학부)

2005년 첫번째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눅 12:42). 해마다 열리는 청지기 훈련은 지혜에 큰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청지기 훈련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내가 저야 할 십자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청지기 훈련을 통해 받았던 은혜가 아직 가슴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필박자였던 바울이 회심한 후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관재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어 긴 사역의 종말을 고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선한 청지기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확신에 찬 헌신이나 말로 제 자신이 본받고 싶은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격하고 결심도 해 보지만 "어찌하냐는 연약한 자요, 죄인의 모습인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배풀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기다릴 뿐입니다. 사도 땅의 수로보기에 여인의 믿음의 승리를 다시 한 번 기억해 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간절히 호소하는 여인의 끈질긴 믿음의 간구는 나를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침묵과 참혹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매이 달리는 모습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울습니다.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해 주세요." 주님만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여인처럼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담한 적도 있었는데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응답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마 15:28).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존심, 고만을 다 버리고 주님만이 길이에요. 진리로 생명의임을 믿고 순종할 때 축복받은 영혼이요, 믿음의 승리가 주는 기쁨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인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 훈련을 거듭할수록 깨어지는 기쁨, 승리의 기쁨,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2월 18일 저녁 7시를 기대합니다. 구역 석구들과 함께 다시 주님의 청지기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박현순(집사, 14교구)

2005 상반기 장학생 명단

전역 장학생(3명)

3기(01): 이복순 4기(02): 오경희 기용영

대학원생(25명)

강미경 강진우 김경성 김민정 김성은 김호진 박경배 박세연
박연미 박주희 백경섭 위길호 이규진 이나홍 이민욱 이유미
전보은 정명근 조수진 조인선 종은숙 좌정아 최운영 최준호
한정우

대학생(119명)

김지혜 강신은 강지은 고혜영 권현우 권에스터 권요셉 김묘성
김민종 김상희 김선영 김소연 김소영 김수진 김승희 김아름
김영은 김옥진 김윤경 김재현 김정윤 김지혜 김지희 김찬미
김현경 김현우 김형규 김혜선 김희진 나지원 나지희 남윤경
노미소 노지은 류승연 박진진 박경훈 박동민 박미연 박준성
박현정 박효선 배성준 배지혜 배찬희 변영현 서단비 송향아
송민규 신성철 심재원 안윤정 염해실 오상현 오태석 오홍균
유미경 유송희 유재혁 유종준 윤석원 윤영연 윤은진 윤지현
이교은 이단비 이연희 이보형 이병진 이희희 이요람
이상희 이선민 이신화 이성현 이성훈 이용현 이우주 이은주
이재욱 이정덕 이정주 이주영 이지훈 이현남 이현민 이효진

장성재 장우민 장우신 장정은 장현민 전선영 전성진 전해영
정다희 정유진 정은미 정해실 정해진 조 형 조상미 조성완
조수진 조은영 조종현 조지웅 지은진 천진정 최 용 최선정
최예슬 최희은 한태범 하에스터 홍경화 홍성은 황세연

고등학생(79명)

강 진 강민희 강부희 강성천 강재구 고혜진 고희성 권도형
권예란 김대혁 김도홍 김성은 김성진 김소담 김에스터 김연희
김예진 김윤희 김유영 김윤영 김재훈 김준환 김지선 김지예
김지은 김지혜 김홍미 목영진 바다송 박성준 박은지 박정영
박정윤 박진수 백지수 송성배 송은혜 안재훈 오인환 우가원
유선아 유지현 이나현 이도영 이미영 이상환 이성구 이성진
이송이 이슬기 이정옥 이지연 이자윤 이진환 임유진 전지향
전하라 정도경 정성미 정예은 정지혜 조나영 조윤진 조현아
지석현 지은미 전세영 차병철 채수호 최원민 최안나 최재진
최진영 최현림 한국화 한이락 현슬기 현지훈 홍지혜

이상 226명

장학증서 수여식 및 명성훈련 실시(대학원생·대학생 선별자에 한함)

일시: 2005년 2월 18일(금) 청지기 훈련 후 장소: 배다니홀

교회탐방 52 선교위원회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여러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내는 선교사와 나가는 선교사가 마음을 모아야 복음 전파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은 나가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보내는 쪽의 노고를 잊기 쉽다. 그러나 우리, 한 번쯤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주님께 쓰임받는 지체들을 살펴보자.



선교위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체입니다.

선교위원회의 내 단기 선교부에는 기획분과, 진행분과, 관리분과, 훈련분과, 지원분과가 있어서 단기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전통적 경로, 위원장)

전교인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위임 목사님의 목회방침이며 전 성도들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것이지요. (정연민 목사)

선교위원회의 거시목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미시목표는 알려지지 않은 선교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선교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성현 장로)

단기 선교를 시작한 후, 성도들의 변화는 아주 많습니다. 모든 성도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은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었습니다. (전종철 장로)

올해 선교의 비전을 두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2,500명 이상 파송을 목표로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중 특히 젊은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헌신 선교사준비생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현재 9명의 선교사준비생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로 무장한 헌신 선교사가 되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김태식 안수집사)

나온 선교를 위해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사역보고를 들어 보면 아무런 절차없이 준비를 해도 헌신에 가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지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 보다 다각도로 연구하여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문수 안수집사)

단기 선교사들은 선교위원회에 자주 오십시오. 선교 4년차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자료에 꽤 많이 있습니다. 선교준비를 하다가 답답해서 땅을 밟지 말고 선교위원회로 오십시오. 자료를 두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오십시오. (김태식 안수집사)

성도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평신도 선교사를 찾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선교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선교지에 다녀 온 후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유념했으면 합니다. 내면 선교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황문철 장로)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선교방향을 이해하고 순종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정성현 장로)

주변 교회에 선교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성도들이 잘 해 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 장로)

주님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구나." (전종철 장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맘을 기울여 주셨습니까." (정연민 목사)

"충현의 성도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았구나." (황문철 장로)

"내 맘에 꼭 드는 방법으로 충성했구나." (정성현 장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하느라고 수고했구나." (김태식 안수집사)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너는 내 말을 지키며 나만 의지하였구나." (조문수 안수집사)

선교위원회는 치열한 영적투쟁에 자식을 내려 보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일한다. 오늘날 선교위원회는 성도들을 영적전장으로 잘 보내기 위해, 또 잘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판집필)

다름 주일 찬송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대부분의 찬송은 먼저 가사가 쓰여진 후 그 가사에 맞게 작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곡은 다니엘 타운(Daniel B. Town)가 찬송곡을 작곡한 후 찬송가 작가 잭시 브라운(Jessie Brown)에게 보내며 그 멜로디에 알맞은 찬송사를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절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어둠을 가둔지 예수와 함께 가시며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끝없고 예수와 함께 갈 때 우리는 길이로 갈 수 있음을 알았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함께 있는 것이지 멀리 멀리 가십시오.

후렴은 주와 함께 가면 두려움을 모르고 안전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데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던져 버려야 하는 것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2절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은 결코 혼자 아니며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버릴 자라도 예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자라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그 가는 것이 나 해주는 나리가 된다는 것이다.

3절은 주님새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280). 그러기에 우리는 알마비로 되라는 주를 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 주님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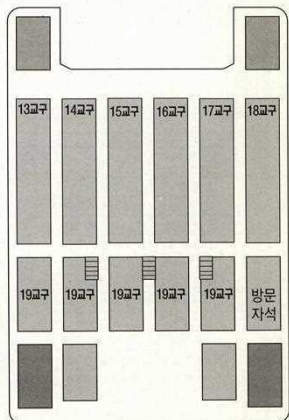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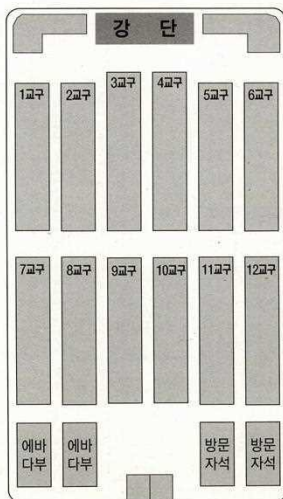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찬양위원회)

청지기 훈련 좌석배치도

*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 탁자보를 운령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바다나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 담회
일시: 16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결혼

1. 정재욱 군 (경부초 교사, 전경공 권사의 아들, 18교구)와 전진영 양 (전제현 씨, 김경애 씨의 딸) / 19(월) 17:00 도곡동 군민공제회(도곡역 4번 출구)

◆ 2005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학생모집

1. 구 분: 수·소·성경공부(신설)·교사양성부·찬양대원양성부
충현전도대훈련원
2. 대 상: 모든 성도
* 자세한 사항은 교육국에 문의하십시오

2월 개척학교 일정 안내

부서명	기 간	장 소
영아부	2. 21.(월) 2, 22.(화)	영아부실
유아부	2. 21.(월) 2, 22.(화)	유아부실
유치부	2. 21.(월) 2, 22.(화)	코이노니아
유년부	2. 21.(월) 2, 22.(화)	유년부실
초동부	2. 21.(월) 2, 22.(화)	초동부실
소년부	2. 21.(월) 2, 22.(화)	소년부실
대학부	2. 22.(화) 2, 24.(목)	충현기도원
청년1부	2. 28.(월) 3, 1.(화)	충현기도원
청년2부	2. 28.(월) 3, 1.(화)	제2교육관 2층
장년부	2. 19.(토) 2, 20.(주일)	교 507호
에바다부	3. 1.(화)	에바다부실

2005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조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3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강 훈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교론 (김용덕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희식 목사)	교육관 304호		
2월 20일 (다음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원택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 (안치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저녁 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구형	류병희/이상석	류병희/김태식	류병희/정영덕	류병희/임연수	여국근/류진희	고광환/이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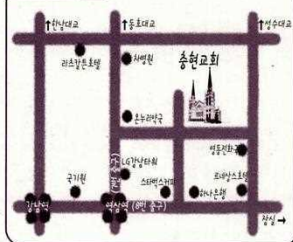
예배담당 안내 (2/16-2/20)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2/16	수요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호산나 찬양대)	장 훈	금요초	자신의 투쟁 (롬 4:17-25) 김성관 목사
2/16	수요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실로암 찬양대)	장진호	오전교	그 후에 위우치고 (마 21:28-32) 양재웅 목사
2/18	창지기도원	연한찬양대	정원민	김연근	예수님의 기도 (눅 6:12) 김성관 목사
2/20	주일 I	(예배 전 찬양)	정성영	김연근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창 17:1) 이계원 목사
2/20	주일 II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와 임마누엘 남성 중창단(지도: 김성관)	양재웅	정대우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창 17:1) 김원환 목사
2/20	주일 III	심자가에 달리신 의 할렐루야 중창단(지도: 이수현)	나광영	최귀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창 17:1) 김성관 목사
2/20	주일 IV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의 바나나를 김주현(아연 오스트리아)	임원택	박용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창 17:1) 김준희 목사
2/20	주일 V	귀신들이 날보다 의 바나나를 오스트리아, 태너 이광덕(현역 장교 윌리엄스)	위권광	김구형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창 17:1) 김성관 목사
2/20	주일찬양	가브리엘 중창단/고동부 찬양대/호산나 찬양대	장충신	석영식	기 도 (골 1:9-12) 김용덕 목사

2월 충현 기도의 창

- 1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용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심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2 2005년 하반기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충현의 모든 청자기와 성도들에게 심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 3 '예수님의 기도' (눅 6:12) 모든 충현의 청자기들이 마음에 새기는 은사를 2005년 제1차 청자기 훈련 12월 18일을 통해 부여 주소서.
- 4 CMTC 훈련과 전도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심자가 복음을 확산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7 2월에 진행될 교회학교의 겨울 계절학교를 통해 새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입문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 8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심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진료

김의원 2교구	김호수 2교구	노광현 2교구	오진규 2교구	이병학 2교구
임팔성 2교구	이훈 2교구	남선우 2교구	김영진 2교구	김종수 2교구
최귀환 2교구	이정호 2교구	차신득 2교구	김정남 2교구	이종식 2교구
안종욱 2교구	임우천 2교구	이갑재 2교구	전종훈 2교구	전종원 2교구
이철우 2교구	김단우 2교구	황영민 2교구	한승규 2교구	김영수 2교구
김환기 2교구	임용철 2교구	이형수 2교구	안도현 2교구	황의만 2교구
김구형 2교구	최유준 2교구	이계인 2교구	박덕원 2교구	이태식 2교구
김영달 2교구	이철호 2교구	최지훈 2교구	노영한 2교구	박철근 2교구
김정철 2교구	신상수 2교구	고계승 2교구	김정현 2교구	김영은 2교구
이달욱 2교구	정철환 2교구	김승곤 2교구	함철주 2교구	윤석민 2교구
정성현 2교구	안인환 2교구	김연근 2교구	김창경 2교구	김종신 2교구

■ 부목사

이우재 2교구	정현민 2교구	박인기 2교구	류병희 2교구	김영훈 2교구
여국근 2교구	안영환 2교구	나광영 2교구	정진호 2교구	김용덕 2교구
고광환 2교구	최귀환 2교구	김원환 2교구	장 훈 2교구	이원택 2교구
이희식 2교구	최종철 2교구	하종철 2교구	안치원 2교구	장충신 2교구
양재웅 2교구	이석진 2교구	조주곡 2교구	최성규 2교구	이계영 2교구
이경준 2교구	이광수 2교구	김준희 2교구	윤수일 2교구	황정섭 2교구
장성영 2교구				

■ 장로

정현민 2교구	신동자 2교구	윤연준 2교구	한영준 2교구	김연석 2교구
홍순재 2교구	이우재 2교구	김달기 2교구	안대순 2교구	김정현 2교구
조주곡 2교구	김정현 2교구	최종철 2교구	장훈희 2교구	김영순 2교구
김정자 2교구	이우재 2교구	김희희 2교구	이복순 2교구	류진희 2교구
한성일 2교구				

- 찬양감독 강인구 ■ 전일지휘자 서준성
■ 전일지휘자 김소연
■ 전 교 사 송요한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아침 통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철야	오후 10:30	금요일회 후 본당 앞 앞밭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동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동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장 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청 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의 저하 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교육관 207호
악 아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메디나홀
출연어린아들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청신장예민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민국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우리말로, Simultaneous translation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Op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Blessed O'clock Worship Service.